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11.29

미 증시, 금리 인하 기대 내러티브 강화에 상승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완화적 발언

- 미 증시는 매파 연준 인사의 완화 발언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11월 랠리에 대한 (기술적) 부담과 주 후반 PCE 인플레이션, ISM 제조업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관망심리 커지며 상승폭 축소.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은 10년물 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며 장단기금리차가 축소하는 강세스티프닝 나타나. 달러인덱스는 지난 8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실질금리 하락에 힘입어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4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최고까지 1.4% 밖에 남지 않아. 국제유가는 OPEC+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2% 가까이 상승. (다우 +0.24%, 나스닥 +0.29%, S&P500 +0.10%, 러셀2000 -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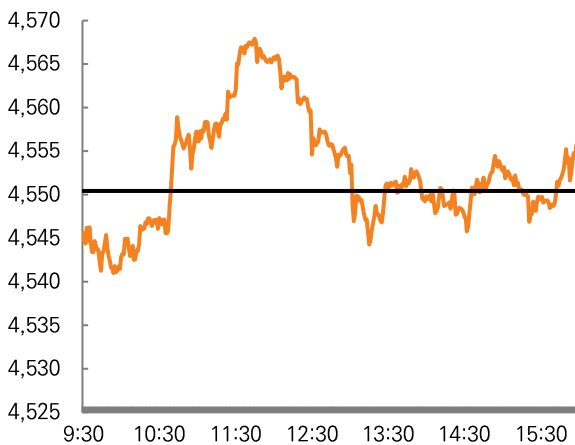
특징 종목: 테슬라 상승

-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부동산(+0.52%), 유틸리티(+0.31%) 등 6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50%), 금융(-0.28%) 등 5개 업종은 하락. 특히, 필수소비재(+0.40%)와 경기소비재(+0.54%)는 양호한 사이버위크 매출 증가 소식에 강세.
- (상승) 테슬라(+4.51%)는 오는 30일 사이버트럭(Cybertruck)의 공식적인 배송을 앞두고 이에 대한 월가의 호평 이어져. 웨드부시의 덴 아이브스 '빅 모멘트'로 평가하며 테슬라가 구축한 EV 생태계의 혁신과 'Mind share lead'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
- (하락) 마이크로소프트(-1.79%)은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을 상향조정했지만 운영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약세. 차지포인트홀딩스(-3.02%)는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하고 목표주가를 낮추자 약세.

한국 증시 전망: 금상첨화

- MSCI 한국 지수 ETF는 1.49%, MSCI 신흥 지수 ETF는 0.8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86.1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5% 하락. KOSPI는 0.2%~0.4%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와 기관의 매수 차익거래(현물매수+선물매도)에 힘입어 5거래일째 등락을 거듭했던 2,500선을 돌파. 향후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까지 이어질 필요 있어.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이 급락하고 달러인덱스는 지난 8월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한 점은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 수급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521.76	+1.05	상해종합	3,038.55	+0.23
KOSDAQ	816.44	+0.76	홍콩항셱	17,354.14	-0.98
DOW	35,416.98	+0.24	인도센섹스	66,174.20	+0.31
NASDAQ	14,281.76	+0.29	유로스톡스 50	4,348.02	-0.15
S&P 500	4,553.67	+0.07	영국	7,455.24	-0.07
캐나다	20,047.50	+0.07	독일	15,992.67	+0.16
일본	33,408.39	-0.12	프랑스	7,250.13	-0.21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FedSpeak ② 경제지표

미 증시는 매파 연준 인사의 완화 발언으로 상승 출발했으나, 11월 랠리에 대한 (기술적) 부담과 주 후반 PCE 인플레이션, ISM 제조업지수 등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관망심리 커지며 상승폭 축소.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은 10년물 보다 더 큰 낙폭을 보이며 장단기금리차가 축소하는 강세스티프닝 나타나. 달러인덱스는 지난 8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실질금리 하락에 힘입어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2040달러를 돌파하며 역사적 최고까지 1.4% 밖에 남지 않아. 국제유가는 OPEC+ 협상 불확실성으로 인해 2% 가까이 상승.

FedSpeak

크리스토퍼 윌러 연준 이사는 19명의 연준 위원 중 가장 매파적 인사 중 한 명이었음. 그러나 이날 그의 발언은 상당히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며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의 낙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였음. 그는 현재의 정책(기준금리 5.25~5.50%)이 경제를 둔화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확신이 점점 커진다고 밝히. 이는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와 가능성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시장이 최근 반영하고 있는 금리인하 내러티브(narrative)를 더욱 강화시킴. 반면, 또 다른 매파 인사 중 한 명인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서비스 소비 증가와 반도체법(Chip Act),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으로 투자가 장려되어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수 있다면서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더 인상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매파적(hawkish) 입장을 유지.

다만, 장중 진행된 약 39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하게 나오자 장기채 중심으로 일부 수익률 되돌림 현상이 나타났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재차 금리인하에 대한 강한 기대가 반영되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이날 진행된 7년물 국채 입찰의 응찰률은 이전 2.70배에서 하락한 2.44배를 기록하였고, 간접낙찰율도 이전 70.6%에서 63.9%로 하락.

Eco리뷰: 주택가격, 소비자신뢰

S&P 케이스-실러 20개도시 주택가격지수는 지난 9월 전년동기대비 3.92% 상승했는데, 이는 2022년 12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으로 8월 하향 수정치인 2.14%와 시장이 예상한 3.90%를 상회. 또한 페니매(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이 모기지 보증을 한 단독주택 평균 가격은 8월 전월대비 0.6%에서 0.7% 상승으로 상향 수정된 데 이어, 9월에는 0.6% 상승하며 시장 예상 0.5%를 상회. 이는 판매용 주택 공급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는 102.0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하락 후 반등. 소비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기대치는 소폭 낮아진(138.6→138.2)반면, 미래 전망은 개선(72.7→77.8)됐지만 올해 여름철(6~8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80 미만 기록. 컨퍼런스보드는 미래 전망 수치가 80 미만의 수준을 나타내면 내년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고 설명.

리치몬드 연은 11월 제조업 지수는 -5%로 지난 달 3%과 시장이 예상 1%을 모두 하회. 출하, 주문잔고 및 고용이 전월대비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래 사업 상황에 대해 낙관하는 비중도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소비재 강세

(섹터) S&P 500의 11개 주요 업종 중 부동산(+0.52%), 유틸리티(+0.31%) 등 6개 업종은 상승한 반면, 헬스케어(-0.50%), 금융(-0.28%) 등 5개 업종은 하락. 특히, 필수소비재(+0.40%)와 경기 소비재(+0.54%)는 양호한 사이버위크 매출 증가 소식에 강세.

(상승) 테슬라(+4.51%)는 오는 30일 사이버트럭(Cybertruck)의 공식적인 배송을 앞두고 이에 대한 월가의 호평 이어져. 웨드부시의 덴 아이브스 ‘빅 모멘트’로 평가하며 테슬라가 구축한 EV 생태계의 혁신과 ‘Mind share lead’를 보여줄 것이라고 평가. 도이체방크와 RBC는 사이버트럭의 후광효과에 주목. PDD홀딩스(+18.08%)는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94%나 증가했다는 소식에 강세. 보잉(+1.40%), 크록스(+5.13%), 어펄홀딩스(+11.51%), nLight(+4.17%)는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 상향에 강세를 보였고 트윌리오(+3.58%)는 행동주의 투자자인 Anson Funds가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상승. 칼라일그룹(+4.91%)은 S&P Midcap 400에 합류할 것이라는 소식에 강세.

(하락) 마이크론(-1.79%)은 회계연도 1분기 매출을 상향조정했지만 운영비용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약세. 차지포인트홀딩스(-3.02%)는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조정하고 목표주가를 낮추자 약세. 아세틸린(-32.41%)은 임상 수행에서 발생한 오류로 급락.

상품 및
FX시장 동향

미 국채 수익률, 9월 중순 이후 최저

(금리) 미 국채 수익률 곡선 전반의 하방 압력 커져. 이는 연준 위원 중 가장 매파적 인사로 분류됐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점점 더 확신한다는 발언에 2년물 수익률은 전일대비 14bp 넘게 하락. 장중 7년물 국채 입찰 수요가 부진하자 장기채 중심의 수익률이 낙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10년물과 2년물 간 장단기금리차는 강세 스티프닝(Bull Steepening)이 나타나면서 역전폭이 전일대비 9bp 넘게 축소.

(외환) 국채 수익률 하락과 함께 달러인덱스는 103선을 하회하며 지난 8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달러 약세에 힘입어 유로, 엔화, 스위스 프랑 등 통화 강세.

(유가) 오는 30일 OPEC+ 회의를 앞두고 사우디와 아프리카 산유국 간의 2024년 생산량 할당 문제를 놓고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부각되며 국제 유가는 상승. 이로 인해 회의가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 커져. 한편, 미국 가솔린 가격은 60일 연속 하락 기록.

(농산물) 코코아 선물 가격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1977년 9월 이후 최고수준 기록.

한국
주식시장 전망

금상첨화

MSCI 한국 지수 ETF는 1.49%, MSCI 신흥 지수 ETF는 0.8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86.10원으로 이를 반영한 달러/원 환율은 9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25% 하락. KOSPI는 0.2%~0.4% 출발할 것으로 예상

전일 코스피는 외국인의 선물 순매수와 기관의 매수 차익거래(현물매수+선물매도)에 힘입어 5거래일째 등락을 거듭했던 2,500선을 돌파. 향후 추세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의 현물 순매수까지 이어질 필요 있어. 미 국채 2년물 수익률이 급락하고 달러인덱스는 지난 8월 이후 최저수준까지 하락한 점은 국내 증시에는 우호적 수급환경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

마켓 스냅샷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0.29	대형 가치주 ETF (IVE)	+0.06
클린테크 ETF (CTEC)	-1.38	중형 가치주 ETF (IWS)	-0.16
소매업체 ETF (XLY)	+0.58	소형 가치주 ETF (IWN)	-0.25
온라인소매 ETF (EBIZ)	+1.75	대형 성장주 ETF (VUG)	+0.24
미국 인프라 ETF (PAVE)	-1.18	중형 성장주 ETF (IWP)	-0.24
핀테크 ETF (FINX)	+0.20	소형 성장주 ETF (IWO)	-0.60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0.06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47
클라우드 ETF (CLOU)	+1.04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12
사이버보안 ETF (BUG)	-0.47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0.72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0.17	미국 국채 ETF (IEF)	+0.44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1.15	하이일드 ETF (JNK)	+0.37
바이오섹터 ETF (IBB)	-0.30	신흥국 채권 ETF (EMBD)	+0.20
로봇&AI ETF (BOTZ)	-0.34	물가연동채 ETF (TIP)	+0.39
반도체 ETF (SMH)	-0.58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0.40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경기소비재	1,343.90	+0.54	+0.99	+13.55
부동산	229.43	+0.52	+1.15	+13.14
필수소비재	744.14	+0.40	+1.61	+5.73
커뮤니케이션	239.86	+0.32	+0.05	+12.63
유틸리티	317.79	+0.31	+1.28	+6.54
소재	510.35	+0.20	+0.96	+8.16
IT	3,275.35	+0.19	-0.64	+14.78
에너지	642.89	+0.06	-0.21	-0.88
산업재	890.49	-0.24	-0.39	+9.16
금융	583.91	-0.28	+0.12	+11.66
헬스케어	1,507.92	-0.50	+0.51	+5.14

글로벌 FICC 동향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6.41	+1.98	-1.91	Dollar Index	102.779	-0.41	-0.76
브렌트유	81.68	+1.96	-1.09	EUR/USD	1.0991	+0.34	+0.73
천연가스	2.71	-3.15	-6.11	USD/JPY	147.46	-0.83	-0.63
금	2,060.20	+1.45	+3.10	GBP/USD	1.2695	+0.54	+1.24
은	25.30	+1.55	+6.12	USD/CHF	0.8781	-0.25	-0.63
알루미늄	2,217.00	+0.29	-1.84	AUD/USD	0.6648	+0.62	+1.40
전기동	8,473.00	+1.30	+0.28	USD/CAD	1.3573	-0.32	-0.93
아연	2,537.50	-0.06	-0.33	USD/RUB	88.9005	-0.20	+0.74
옥수수	473.50	-0.32	-2.82	USD/BRL	4.8711	-0.57	-0.57
밀	572.00	+2.18	+0.48	USD/CNH	7.1335	-0.36	-0.13
대두	1,346.50	+1.30	-1.48	USD/KRW	1,293.80	-0.77	+0.36
커피	173.10	+2.40	+1.14	USD/KRW NDF1M	1,286.13	-0.79	-0.5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4.328	-5.82	-6.42	스페인	3.500	-4.00	-6.00
한국	3.735	-2.70	+2.50	포르투갈	3.176	-5.00	-3.70
일본	0.758	-2.00	+5.50	그리스	3.732	-4.80	-3.60
독일	2.497	-5.10	-6.90	이탈리아	4.254	-3.00	-6.3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